

# 汎愛學派가 近代體育의 形成에 미친 影響

盧 熙 憲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體育教育科)

## I. 序 論

르네상스 이후부터 近代社會가 체계화되기까지 西歐社會는 思想的으로 많은 激變과 昏迷를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많은 사상적 격변과 혼미를 體系化하는 作業은 큰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하나의 歷史를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事件의 흐름을 구분짓고 完結된 時代空間을 들어내어 一定한 性格을 부여해야 한다. “絕對主義時代史”를 저술한 독일의 史學者 Wagner는 “時代區分과 類型化 없이는 歷史 理解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은 時代區分을 絕對化시키지 않은 채 不斷한 時代의 흐름을 깊이 思考하여 이루어진 구분이라고 한다면 시대구분이나 類型化는 必須不可缺한 歷史識認의 수단이며 歷史研究의 假說이다”(김상태, 1979 : 225). 라 하였다. 近代體育이 형성되는 過程 또한 많은 思想的 激變과 昏迷가 거듭되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時代區分이나 類型化는 體育을 專攻하는 이들에게 큰 意味를 주게 될 것이다.

體育觀은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그 時代思想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현재의 체육사상이 형성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近代의 體育觀으로 循環史觀의 側面<sup>(1)</sup>에서 體育反省時代, 體育啓蒙 및 實踐時代, 體育復活時代로 볼 수 있다. 특히 근대체육의 형성은 체육 부활시대 이후에 와서야 完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체육이 형성되기까지 그 思想的 흐름은 中世의 初期基督教體育觀, 스콜라哲學의 體育觀, 文藝復興期의 體育觀, 實學主義體育觀, 鍛鍊主義體育觀, 自然主義體育觀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한다(Vandallen, 1971, Rice, 1969, 今村嘉雄, 1955, 水野忠文, 1966).

筆者는 과거 르네상스 初期의 體育에 대한 研究(1979, 韓國體育學會)와 實學主義의 體育

(1) 拙稿 1981.12 體育研究所論集二卷二號, 體育史觀의 循環史觀의 時代分類

- |                 |                    |
|-----------------|--------------------|
| 1. 體育 生活時代      | 2. 體育 未開時代(競技未開時代) |
| 3. 體育 文明時代      | 4. 體育 沒落時代         |
| 5. 體育 不在時代      | 6. 體育 反省時代         |
| 7. 體育 啓蒙 및 實踐時代 | 8. 體育 復活時代         |
| 9. 스포츠 萬能時代     |                    |

思想이 近代體育의 形式에 미친 影響(1983, 師大論叢)에 대한 諸研究에서 近代體育을 形成하는데 크게 影響을 미치고 思想的으로나 行動的으로 體育을 實踐한 汎愛派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본연구는 이러한 개인적 동기와 학문적 研究의 必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自然主義思想家 루소(Rousseau)는 人間은 自然으로 돌아가야 한다(back to nature)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思想은 자신의 母國인 프랑스에서는 受容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랜 동안의 절대주의 국가체제로 사회발전이 지연되었던 獨逸에서 그의 思想을 實踐하고자 하는 一團의 教育者들에 의하여 實驗되었다. 이러한 教育者들은 全人類의 幸福을 추구하고자 하는 思想을 강조하면서 汎愛學校(philanthropium)를 세우고 古典語, 人體, 動植物, 鑛物과 같은 自然의 知識과 實物模型 등을 이용하여 物理, 算數, 工作, 園藝를 공부하고 특히 舞踊, 乘馬, 野外散步, 野外生活, 달리기, 레스링 水泳 등과 같은 鍛練主義的인 內容을 포함한 體育을 강조하여 가르쳤다(石山水平, 1953 : 288).

汎愛學校의 創始者인 바세도우(Basedow)는 루소의 에밀(Emile)에 감명을 받아 1774년 데소(Dessau: 現 東獨의 양하루토州의 首都)에 學校를 세우고 모든 계층의 學生들을 博愛主義精神에 입각하여 教育하였다. 바세도우는 教育의 目的을 人類愛에 기초를 두었고 教育방법도 自然主義에 기반을 두고 유쾌한 학습이 되도록 지도하였으며 특히 體育을 중시하여 체육을 正規教科로 정하였다. 데소에 세워진 汎愛學校는 바세도우가 죽자 곧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사였던 살즈만(salzman)은 쉬네펜탈(Schnefenthal)에 또다른 범애학교를 세우고 루소의 사상을 실천하였다. 이 학교의 교사 구츠무츠(Guts Muths)는 體育專擔教師로서 體育을 係系化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당시의 유럽은 絕對主義王政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새로이 싹튼 시민계급이 그들에 적합한 政治係制와 社會를 건설하려는 市民革命과 產業革命이 일어난 時期였다. 각국은 “自國의 國家理念에 근거를 둔 忠誠心”이라고 말하는 Nationalism<sup>(2)</sup>이 팽배하였던 때이다. Nationalism이라는 美名으로 指導者들은 국민들의 충성심을 통한 自國의 利益과 權益을 내세우고자 하였으며 教育 특히 體育을 忠誠心을 배양하는 데 利用하는 方法으로 택하게 되었다. 독일의 야안(Yhan)과 스피이스(Spiess), 덴마크의 나하테갈(Nachtegal), 스웨덴의 링(Ling) 등과 같은 體育家들은 Nationalism이라는 時代的 背景과 결부시켜 體育을 통하여 충성심을 배양시키는 한편 體育를 보다 활발히 展開하고 體系化하여 近代體育을 發展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本 研究는 汎愛派 諸學者들이 루소의 自然主義 思想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近代體育을

(2) Nationalism은 흔히 民族主義, 國民主義 혹은 國家主義라고 번역되며 그 개념은 자기 集團에 대한 最高의 忠誠을 표현하는 心理的이고 社會的인 汎時代的인 概念이라고 볼 수 있다.

歷史教育, Vol. 3, 1958 “Nationalism 개념설정을 위한 少考 참조.

形成하는 하나의 思想的 基調로서 汎愛主義者들은 어떻게 그들의 思想을 전개하였고, 그들의 體育觀과 體育의 實踐過程은 어떠한지를 考察하여 近代體育을 形成하는 데 影響을 준 그들의 體育觀을 類形化해 보고자 하였다.

## Ⅱ. 自然主義 體育思想

汎愛派 教育者들은 루소를 비롯한 諸學者들이 부르짖던 自然主義 思想을 실천하고자 汎愛學校를 設立하고, 이 사상에 입각한 教育을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특히 체육을 중시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自然主義的 體育思想은 體育史의인 側面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自然主義(Naturalism)는 西歐社會에서 가장 오래된 哲學思潮로서 기원전 6세기의 소아시아인으로 모든 物質의 기본요소가 물이라고 주장한 탈레스(Thales)로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5세기초의 루시푸스(Leucippus)와 데모크리투스(Democritus)로 이어지고 기원전 4세기의 에피쿠르스(Epicurus)와 기원전 1세기의 루크레티우스(Lucretius)로 이어지면서, 우주는 어떤 힘에 의해 作用된다는 생각으로 자연의 造化를 믿는 하나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또 12세기에 아베르리스(Averrões)는 자연의 永遠性을 믿었고, 13세기에 베이컨(Roger Bacon—Francis Bacon)과 다름)은 直觀을 통한 自然科學과 經驗에 관심을 갖는 자연주의적 사상을 나타냈다. 토마스 홉즈(Thomas Hobbes)는 고대로부터의 自然主義 思想과 脈을 연결하여 宇宙를 움직이는 實體의 물리적 속성에 관한 자연주의 哲學을 발달시켰다.

루소(Roussau)는 그 자신을 자연주의 信奉者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그를 자연주의 자로서 명확히 부르고 있다. 그는 人間은 단순한 存在로 살며 自然의 秩序에 따르도록 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었다. 특히 그의 著書 “社會契約論”과 “에밀”은 自然主義 思想에 입각한 理想的 社會와 人間을 그리고 있다. 루소 이후로는 19세기의 영국의 스펜서(Herbert Spencer)를 최고의 자연주의자로 꼽고 있다.

自然主義 哲學은 刑而上學的인 관점에서 자연은 확실한 것이며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긴다. 宇宙는 하나의 實體(Substance)로 이루어져 있고 에너지는 우주가 이루어 놓은 실체에서 나온 것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연속성을 가진 과정으로서 여겨지는 개념이다. 認識論的인 관점에서는 感覺的인 知識을 보다 더 理解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思想의 目標를 표출하는 사상이다. 論理的인 관점에서 자연주의는 歸納的인(科學的) 方法에 따른다. 또한 價值論的인 관점에서는 自然 그 자체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가치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社會의 目標는 2차적인 가치에 속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자연주의자들은 모든 아이들은 自然的으로 成長하며 發達한다고 믿고 教育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自然的인 리듬에 따라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적 지식을 얻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自然과학적 方法에 따를 것을 주장한다(Zeigler, 1964, 23~53).

Zeigler(1964 : 64~65)는 자연주의 입장에서의 체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善한 動物로서 人間은 삶의 과도한 부담과 눈물로부터 건널 수 있도록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自然은 인간이 건장한 體格을 갖는 것을 원한다. 자연의 物理法則에 저해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필요한 가르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소녀들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리는 人工의인 모든 형태의 운동을 제거해야 하고 즐거움과 행복스러운 상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게임과 스포츠를 통한 놀이는 흥미를 자극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들은 신체를 발달시킬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體育과 知育의 적절한 均衡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또 그는 체육의 방법을

“교사는 아이들의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성숙과정이 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아이들의 成長發達過程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論理的 순서에 따라 단순한 것에서 부터 복잡한 것으로 교육의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 가능하면 他意에 의한 活動보다도 自發의인 活動이 되도록 북돋아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Willams의 말을 인용하면 ‘아이들의 탐구와 경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고 하였다.

Webster(金大植譯 1973 : 46~49)는 體育에 적용될 수 있는 자연주의의 意義는 “움직이는 行動과 관련된 經驗의 참여를 통하여, 본래 타고난 人間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데 있다.”고 보고 학생들의 흥미, 요구, 욕망, 감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그들의 자연적 成長을 지배하는 自然法則에 따라 民主的인 方法으로 가르치는 哲學思潮라고 자연주의 體育思想을 말하고 있다.

루소는 에밀(鄭秉熙譯, 1976 : 165~166)에서

“어떤 기술을 써먹기 위해선 우선 그것에 해당하는 도구를 입수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선 그 도구는 아무리 사용해도 견디낼 만큼 완강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선 우리들의 지성의 도구인 수족이나 감관이나 기관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러한 도구를 가능한 한 완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그것들을 제공하는 육체가 튼튼하고 건장해야 한다.”

라고 體育의 必要性을 論하고 自然에 따라 變化하는 環境에 人間을 적응시키는 方法을 主張하였다.

### 1. 自然主義 思想家 루소의 體育思想

18세기의 프랑스는 絶對主義가 그 절정에 달하던 時代였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政治를 專制政治라 부른다.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가 태어날 당시는 루이 14세가 무모한 전쟁으로 프랑스의 國力을 당진할 때였고 일반市民은 프랑스 社會의 모순인 舊制度—(Ancien Regime)에 의해 허덕일 때였다. 루소는 부모를 일찍 여위고 원단

한 家庭生活도 해보지 못하였으며, 하인, 마부, 비서, 가정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져 당시의 最下層계급의 社會를 잘 이해할 수 있던 사람이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루소는 자연히 당시의 社會體制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理想的 社會建設과 이상적 人間에 대한 꿈을 표출하였다.

그는 1755년에 출간된 “人間不平等起原論”에서 社會化的 필연적인 결과로서 사회적 불평등의 惡과 人爲性을 비난하였다. 1761년에는 “에밀”의 序頭가 된 “줄리”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는 “나에게 부여된 임무는 나의 아들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받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또 “理性은 肉體가 어느 정도의 발달단계에 도달한 다음 몇년 후에야 발달하기 시작하며 자연스럽리는 마음의 수양을 하기 전에 身體를 단련하는 것이므로 아동은 단지 교육을 위해 준비될 뿐이다”고 하여 아동교육을 위한 思想的 基礎를 닦았다. 1762년에는 “社會契約論”을 저술하여 人民의 一般意志가 社會의 기본이라는 그의 立場을 밝히고 있다. 같은 해에 루소의 教育에 관한 특별한 論文 “에밀”이 출간되었다. 루소는 “社會契約論”에서 理想的 社會講造를 그리고 이상적 社會에서 “줄리”와 “에밀”이 살아가고 教育받도록 그의 사상을 펼치고 있다(Gerber 1971 : 76~78).

특히 “에밀”(鄭秉熙譯, 1976 : 32, 48, 52, 57, 153, 166, 176, 200)에서는 자연주의 體育觀에 입각한 그의 體育思想이 잘 나타나 있다.

“아기들이 최초로 느끼는 감정은 고통의 감정이다. 아기는 하고자 하는 모든 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발견할 뿐이다. 어른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일 즉, 배내옷으로 갓난아이를 칭칭 감는 일, 그리고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아기에게 강요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고 自然을 잘 관찰하여 자연이 끊임 없이 주는 시련을 스스로 體得하도록 부모나 교사는 가르쳐야 한다.”

“육체는 영혼에 복종하기 위하여 건강해야만 한다”, “체질을 강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손의 노동과 육체의 훈련을 해야 한다”, “목욕의 습관은 한번 시작하면 결코 중단하지 말고 平生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몸을 쓴다는 것이 정신의 활동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다”, “고대인이 근대인보다 강한 육체와 영혼을 지니고 있던 것은 체육 교육을 강화한 덕분이다”,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헤엄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이들은 배드민턴을 칠 때 눈과 팔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한다.…… 아이들에게는 우선 유리창을 깨뜨릴 염려가 없는 방 안에서 테니스 경기를 시켜 처음에는 말랑말랑한 공을 사용하게 하고, 라켓은 맨 먼저 나무로 만든 것을 쓰게 하다가 다음에는 양피, 다음에는 장선(腸線)을 두른 걸 쓰게 해야 한다.”

이렇듯 루소는 “에밀”의 곳곳에서 그의 體育思想을 펼치고 있다.

루소는 自然主義 立場에서 일관되게 自然에 따르는 모든 것을 통해 變化하는 環境에 人間을 적응시키고자 하였다.

루소의 體育思想을 鄭應根(1978 : 6)은

- ① 體育은 知育의 기초가 되며 이들은 함께 병행되어 교육되어야 한다.
- ② 體力은 精神力의 바탕이 된다.
- ③ 兒童의 教育방법 중 野外活動은 매우 중요하다.

④ 인간의 건강 유지에 있어서 藥이나 醫術을 통한 치료보다 일이나 節制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고 요약하고 있다.

水野忠文(1955 : 132)은 루소의 體育思想은 自然主義에 입각한 自主獨立의 思想이 나타나 있으며 특히 體育과 노동존중의 정신을 연관시킨 데 그 특징이 있고 자발성에 의한 感覺器官의 訓練, 平生體育實踐을 주장한 體育論, 女子體育을 장려한 것등은 혁신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2. 루소의 自然主義思想이 프랑스에서 펼쳐지지 못한 理由

思想史的으로 17세기에 영국의 절대왕정이 무너지면서 18세기에 유럽의 곳곳에서는 절대왕정이 동요하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啓蒙思潮가 프랑스를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이들은 市民社會 建設의 원리로 自然法을 上程하고 이러한 사상의 思惟方法을 經驗主義에 근거를 두고 理性을 거울삼아 일체의 啓示·傳統·權威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이들의 대표자로는 로크(Locke)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 루소(Rousseau)를 꼽는다. (曹佑鎬, 1983 : 368~371).

앞에서 언급했던 理想的인 社會와 家庭을 그린 루소의 思想이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왜 펼쳐지지 못했을까? 이는 전적으로 당시의 프랑스社會의 舊制度(Ancien Regime)의 구태의연한 태도 때문이다. 구체도하의 프랑스사회는 제 1 신분인 승려, 제 2 신분인 귀족, 제 3 신분인 평민으로 大別되며 당시의 전인구 300萬名중 제 1 신분은 12萬名, 제 2 신분은 40萬名이고 그 나머지는 평민이 었다(曹佑鎬, 1983 : 374). 번번치 못한 출신성분의 루소는 난숙한 문명에 반감을 느끼고 舊制度에 반항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自然을 찬미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다(閔錫泓, 1984 : 462).

어쨌든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에서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루소의 “에밀”이 1762년에 출간되었을 때 파리 대주교와 파리의회는 아래와 같이 “에밀”을 비난했다.

“우리는 에밀을 기독교의 기본과 自然의 法則을 파괴하여 國家의 平和를 해치고 통치자에 대한 반역을 꾀하도록하는 불순한 冊으로 간주한다” (Gerber : 1971 : 76).

1762년에 출간된 루소의 2大 作品으로 “社會契約論”은 王權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또 “에밀”은 반종교적인 이유로 舊敎를 믿는 파리와 新敎를 믿는 쥘네에브에서 공공연하게 불태워버려졌다(金千鎰, 1983 : 251~252).

루소 자신은 “에밀”의 머릿말에서

“체계적인 부분이라 할만한 것, 여기서는 그것이 자연의 발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이 점이 독자들을 당황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 점을 들어 사람들은 틀림 없이 나를 공격하겠지만 그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교육론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환상가의 교육에 대한 몽상을 읽고 있는 것 같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그것을 비난 받고 있다” (鄭秉熙譯, 1976 : 19).

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에밀”을 禁書로 지목해 버리고 말았다. 18세기는 모순의 시대이기도 했다. 당시 유럽에는 實驗科學이 태동하고 갈릴레오,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로크, 흄즈 등의 서적이 휩쓸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王과 議會, 市民들의 역할을 새롭게 制定하여 새로운 學說을 體系化시킨 볼테르, 디데로, 몽테스키외와 같은 哲學者 그룹이 있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社會와 教育的 構造들은 그대로 存在하였으며 크게 變하지도 않았다. 여전히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고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넓게는 상류계급까지의 세력이 약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과과정은 카톨릭의 통제아래 있었으며 고전 라틴어와 그리스 학문 그리고 전통적 종교로 구성되었으며 엄격하고 통제적인 분위기에서 행해졌다(Gerber 1971 : 76~77).

루소는 그의 思想的 同志를 모으려 했으며 그의 새로운 사상은 그의 死後에 프랑스 革命을 일으키는 사상적 기반으로 분명히 成功<sup>3)</sup>했으나 당시에는 루소의 책은 불살라지고, 루소에게는 체포령이 내리는 등 그는 불행한 최후를 마쳤다.

프랑스에서는 自然主義 思潮가 프랑스 혁명 이후까지 불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Vandalen 1971 : 186) 루소의 體育思想은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펼칠 수 없었다.

오히려 金千鎰(1983 : 255)은 “루소의 교육사상이 프랑스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독일에서 실천되게 된 큰 理由는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라·샤롯데(La Chalotais)가 저술한 「國民教育論」(1763)의 사상이 「에밀」의 사상보다 시급했다”고 말하고 있다.

### Ⅲ. 汎愛學校

#### 1. 獨逸의 傳統的 教育形態

앞에서 論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루소의 體育思想을 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독일에서 그의 사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프로이센 絶對王制하의 教育은 軍事國家에 相應한 教育내용으로 絶對주의적 군사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人材를 확대, 再 생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Friedrich-Wilhelm I, 1713~1740)와 프리드리히 大王(1740~1786) 등의 絶對군주는 教育에 의하여 强대한 軍國주의 국가를 형성코자 國家統制의 초등교육 조직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8세기에 이미 국가적 기관으로 학교 조직이 이루어졌으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가정교사 교육의 수준을 조금 넘을 정도였다. 레에만(Max Lehman)은 絶對주의 시대의 프로이센의 전통적 教育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獨逸文化研究所, 1974 : 158~160).

(3)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끼친 영향: 나폴레옹인 “만약 루소가 없었더라면 프랑스 革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할 말은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 해준다.

“教師는 매우 그 수가 부족하였고 校舍는 아주 제한되었기 때문에 교육은 教師의 居室에서 거의 이루어진 바 그 거실에서는 동시에 敎사의 가족들이 家事를 돌보았던 것이다. 연령과 지식 수준에 의거한 아동 분류에 관하여는 거의 論議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敎授方法은 서글픈 정도였다. 쓰기, 셈하기를 위하여 父母는 고액의 학비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수업은 읽기의 법칙 및 宗教敎育에 국한된 것이었다. ……여름에는 학교는 문을 닫았다. ……게다가 국가는 감시와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은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

독일은 18세기까지 여전히 작은 도시 국가들의 집합체였으며 독일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국가적 지도력이 결여되어 프랑스의 작가나 철학자 또는 그들의 유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고 自國에 가치 있는 새로운 귀족정치를 세우려는 手段을 찾고 있었다. 이런 때에 人間의 高貴性과 自然의 正當性에 관한 루소의 “에밀”은 새로운 敎育理想에 대한 구심점을 독일인들에게 제공하였다.

## 2. 데소(Dassau)의 汎愛學校(Philantropium)

1768년 바세도우가 루소의 사상을 실행하려는 계획으로 “공공복리에 대한 학교와 교육 그리고 그것들의 영향에 관해 자산가 및 박애주의자에게 드리는 글”을 썼을 때 이 글은 독일인들에게 열렬히 받아들여졌다. 특히 안헨트(Anhalt)공은 데소(Dassau)에 汎愛學校(Philantropium)라 명명된 그의 私立學校를 개설하여 바세도우를 초대하여 루소의 思想을 實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後에 이 학교는 “데소 敎育所”라 하여 우리가 흔히 부르는 최초의 汎愛學校가 되었다(Gerber, 1971 : 83).

이 학교는 1793년에 폐쇄될 때까지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실험 학교에 대하여 괴테와 칸트같은 대 학자들도 그 대담한 실험에 지지를 나타냈을 정도였다(Vandalen 1971 : 191).

### 1) 바세도우(Johann Barnhard Basedow: 1723~1790)

독일의 함부르크(Hamburg)에서 소시민 계급의 아들로 태어나 1746년에 짐나지움(Gymnasium)을 졸업하고 라이프찌히(Leipzig) 대학에서 神學을 배웠으며 1748년 키엘(kiel) 대학으로 옮겨 1752년에는 “훌륭한 青年을 敎育하기 위한 現在 使用되고 있지 않는 最善의 方法에 대하여”란 論文으로 博士學位를 받았다. 그는 덴마크의 소래(Sorøe)에 초청되어 王侯 貴族의 子弟를 敎育하는 騎士學院이라고 불리는 릿다. 아카데미(Ritter Akademie)에서 哲學과 美學 敎授로 8년 동안 재직하였다. 이 학교는 16, 7세기의 전통대로 文學뿐만 아니라 승마, 펜싱, 체조 그리고 다양한 球技에 이르기까지 전문교사가 있었다. 이때의 경험에서 바세도우는 體育를 중시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는 기사학원에서 “通俗實踐哲學”을 1758년에 公表하였는데 이것이 異端視되어 敎會에서 추방되었다. 1761년에 알토나(Altona)의 짐나지움으로 옮겨 7년간 재직하기도 하였다. 그후 1774년 汎愛學校가 開設되고 나서 1778년 그가 사직할 때까지 自身の 敎育에 대한 理



念을 이 학교에서 實踐하였다. 그의 教育理念은 博愛主義였지만 바세도우 자신은 야비하고, 건방지며, 저속한 언어를 쓰고 불독에 빠진 것 같은 비 설용적인 사람이라고 表現되고 있다(Gerber, 1971 : 1985).

그의 體育觀은 1770년에 쓰여진 “初學書(Elemental buch)와 1774년에 쓴 개정된 初等讀本(Elementarwerk)에 나타나 있다. 초등독본에서 바세도우는 어린이에게 興味를 주는 遊戲를 이용한 學習方法을 발표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대부분 그의 教育論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神士의 教育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으나 教育을 國家管理下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少年時節부터 각종 生活에 관한 知識을 가르쳐 職業에 의한 차별적 편견을 제거하려는 휴머니즘적인 단련주의적 생각(趙明烈, 1984 : 116)은 주목할만하다.

바세도우는 “가정과 국민의 부모를 위한 方法書”(1770)에서(베이컨과 코메니우스 그리고 루소의 思想을 결합하여) 소년·소녀들을 위한 教育계획을 다음 .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自然을 따를 것, 둘째 感覺을 통한 學習, 셋째, 自然의 方法에 의한 言信學習, 네째. 學習時 自然의 教材 사용 다섯째, 兒童을 兒童으로 대해 줄 것”(Gerber, 1971 : 83~84). 이는 루소의 “에밀”에 나와있는 에밀의 教育方法을 體系化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한 예를 든다면 루소는 “성장 도상에 있는 아이의 수족은 의복 속에서 매우 편안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프랑스풍의 의복은 어른에게도 답답하고 불편강한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특히 해롭다.…… 아이들은 그들을 우리들의 편견에 뒤따르게 하지 않는 한 무엇보다도 마음 편하고 자유스러운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鄭秉熙譯 1976 : 167~169). 고 말하고 있는데 대해 바세도우는 兒童을 兒童으로 대하는 自然法則에 따라 그대로 實踐하여 汎愛學校의 學生들은 간단하고 活動이 自由스러운 향해사식의 제복을 입게 하였다. 그는 그의 교수방법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1776년 많은 대중앞에서 그의 學生들에게 공공시험을 치루게 하였다(Gerber, 1971 : 84).

범애학교의 설립 취지에는 하루에 5시간을 學習하고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은 게임, 체조, 스포츠, 레크레이션 그리고 펜싱, 승마, 무용등을 하게 되어 있었다. 또 이것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자로서 교원 유자격자를 선택하였다(Rice 1969 : 63).

## 2) 시몽(Johann Friedrich Simon)과 토이트(Johann Jakob DuToit)

범애학교에서의 체육수업은 最初의 近代的 體育教師라 할 수 있는 시몽이 맡았다. 그는 재직 1년 반 동안 상급반 남학생들을 위한 펜싱 지도와 사교춤 교습을 그리고 안헨트 공작의 개인 승마학교에서 승마법을 포함한 騎士道 수련을 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 그는 “그리이스 체조”라 命名된 것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달리기, 레스링, 던지기 그리고 킥뛰기등 고대 그리이스의 집나지움에서의 운동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는 한쪽 쪽이 좁은 곳에서 점점 넓어져가는 쪽이 다른 도랑을 이용하여 넓이뛰기를 시켰고, 높이뛰기를 위해

서는 높이 5피트 정도의 장대를 세워 1인치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원하는 높이에 쇠기를 꽂아 두고자 하는 높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 약 4피트 높이의 길고 둥근 원통을 이용한 평균대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도랑 위에 좁은 널판지를 가로질러 그 위를 건너가게 하는 등 각종 체육용 도구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시몽은 체조운동이외에도 배드민턴, 테니스, 九珠戲, 공놀이 등을 포함한 각종 게임을 지도하였다.

시몽의 뒤를 이은 토이트는 수영, 스키이팅, 궁도, 사격, 하이킹, 경사진사다리를 손을 사용하지 않고 오르기 등 다양한 놀이와 게임을 추가하였다. 토이트가 고안한 운동 중에는 “모래주머니 옮기기”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은 학생이 두손을 뻗어서 모래주머니를 수평으로 이동시켜 놓으면 교사는 옮겨 놓은 모래주머니의 수를 큰 소리로 세고 학생이 피로하여 더이상 옮겨 놓지 못하면 그때까지의 수치를 기록하여 매일매일의 근력증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Gerber, 1971 : 85~86).

## 2. 슈네펜탈(Schnepfenthal)의 汎愛學校

바세도우에 의해 데소(Dassau)에 세워진 汎愛學校는 實驗學校로서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였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의 教育理念이나 實驗論 등에 대한 관심은 전유럽 특히 독일에서 크게 일어났다.

데소의 범애학교에서 3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던 살즈만(Salzman)은 슈네펜탈(Schnepfenthal)에 “슈네펜탈 敎育所”라는 범애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도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을 실천하는 교육기관으로 특히 체육을 교육의 중요한 교과로 채택하여,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른 교육을 실천하였다.

살즈만은 그의 아들 앙드레에게 체육교사의 임무를 1년에 동안 맡겼고 후에 近代體育의 祖父라 일컫는 구츠트루에게 體育를 專擔시켰다.

### 1) 살즈만(Salzman)과 앙드레(Andre)

살즈만(Christin Gotthilf Salzman, 1744~1811)은 독일의 에르프르트(Erfrut)에서 牧師의 아들로 태어났다. 1761년 예나(Jena) 대학에서 神學을 전공하여 목사직을 맡으면서 어린이의 성격과 발달에 관한 정밀한 관찰과 가정의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論文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자연주의 사상을 연구하다가 바세도우가 경영하는 데소의 범애학교에 宗教敎師로 초빙되어 3년간 이 학교에서 재직하였다. 그러나 바세도우와 의견이 맞지 않아 1783년 고타(Gotha)로 갔고 그 다음해인 1784년에 고타侯(Saxe-Gotha) 에른스트 2世(Duke Ernst II)로부터 후원금 4千 塔러(thaler : 은화)의 보조를 얻어 고타(Gotha) 근방의 슈네펜탈(Schnepfenthal)에 새로운 범애학교를 세웠다.

살즈만은 이 學校의 設立條件으로 다음과 같은 3개 條項을 들었다(金千鎰 1983 : 257). 첫째, 市街에서 적당한 거리에 세울 것. 둘째, 1人 校長이 統一 監督할 것. 셋째, 兒童을

家族의 一員으로 다룰 것 등을 들었다. 이것은 學校의 目的을 健康하고 쾌활하며 理性的인 선량한 人間 陶冶로서 아동 개인의 幸福과 同胞의 幸福을 증진시킬 수 있는 人間の 形成 즉, 汎愛主義 教育을 實踐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가지 설립 조건을 제시한 쉬네펜탈의 범애학교는 데스의 범애학교와 마찬가지로 家族 單位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며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의도한 것(Gerber 1971 : 121)은 첫째, 아름다움과 自然에 대한 자각을 만들도록 한 점, 둘째 校長, 敎職員과 學生들간의 幸福과 믿음의 감정을 높이고자 한 점이며 세번째로는 學生들 간의 깊은 相互 신뢰의 분위기를 위한 것이었다.

살츠만의 教育方法은 知育과 訓育 및 體育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教育을 시키기 위해 汎愛學校의 교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하였다(金千鎰 1983 : 258).

① 健康할 것, ② 언제나 快活할 것, ③ 兒童과 화목하게 사귀는 것을 배울 것, ④ 兒童에 관한 事項에 따를 것을 배울 것, ⑤ 自然의 生産物에 대한 明瞭한 지식을 얻는 데 노력할 것, ⑥ 勤勉이 일의 成就를 갖고 온다는 것을 배울 것, ⑦ 손의 使用을 배울 것, ⑧ 時間을 절약하는 習性을 기를 것, ⑨ 건강한 兒童을 가지는 가정과 教育기관에 관계할 것, ⑩ 兒童으로 하여금 自己의 의무를 확신케 하는 技能을 갖게끔 노력할 것, ⑪ 兒童에게 行하도록 할 것은 먼저 스스로가 이를 先行할 것.

이러한 敎師의 準則事項은 近來 강조되고 있는 人間 中心 體育 수업시 敎사와 學習者 간의 상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人間 관계는 모든 敎과 내용을 학습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敎사와 학습자 사이는 따뜻한 人間美가 흐르고 서로 접촉하고 절친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Maslow, 1979 : 14~15)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살츠만은 教育目的을 위해 體育을 중시하였으며 그의 아들 앙드레(Christin Karl Andre)에게 體育敎師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 학교 최초의 체육교사인 앙드레가 실시한 體育 授業의 내용에는 계 시간에 行軍하기, 平均臺 위에서 걷기, 도랑건너기, 높이뛰기대 위에 놓여진 장대뛰어넘기, 도랑 뛰어넘기, 봉고도, 팔뻔쳐 重量들어옮기기, 과녁맞추기, 競步, 줄넘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 스케이팅, 활주놀이, 오래걷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앙드레는 일요일 오후에 게임이나 하키를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이 경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모자에 떡갈나무 잎을 씌워서 구별했으며 때로는 그 다음 날에 그가 운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을 주기도 하였다(Gerber, 1971 : 123).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놀이나 敎育내용은 구츠므츠에 의해 계속 이어졌다.

## 2) 구츠므츠(Johann Friedrich Guts Muths : 1759~1839)

구츠므츠는 프로이센의 퀴드링브르크(Quedlinburg)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에는 聖經과

地理學 그리고 그리스와 라틴어로 된 오래된 책이 있는 서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구즈므츠는 神學과 地理學 그리고 古代의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 구즈므츠는 하레(Halle) 대학에서 神學을 배운 후 家庭教師가 되기도 하였지만 50여년동안 줄곳 쉬네펠탈의 법의학 교에서 재직하였다.

그는 살쯔만 부인의 질녀와 결혼하여 쉬네펠탈에 정착하였고 地理와 佛語를 가르치다가 앙드레가 하던 체육수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는 앙드레의 교육내용을 모방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반영하면서 體育을 하나하나 體系的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구즈므츠는 體育수업을 위해 시소우(See-Saw)를 세웠고, 로프로된 사닥다리 오르기, 로프에 매달리기, 작대기오르기, 손끝으로 막대기 균형잡기, 나무로 만든 원반던지기, 레슬링, 무거운 짐나르기 등의 여러가지 운동을 새롭게 고안해 냈고 날씨가 나쁠 때는 近代 마루운동에 필적할만한 실내운동으로서 신체의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해 여러가지 운동과 동작을 고안하여 가르쳤다(Gerber, 1971 : 123).

체육수업은 오전 11시부터 12시 정오까지 매일 실시했고 地理와 工藝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하였다. 그는 1802년 법의학 교에 水泳場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수영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특히 野外生活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게임 이외에도 그는 전체 학생들과 야외로 나가는 피크닉이나 하이킹을 자주하였는데 한 기록에 의하면 45명이 4일동안 여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1년동안에 하이킹한 거리가 약 100마일이나 되었다고 한다(Gerber, 1971 : 124).

구즈므츠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법의학 교의 체육교사로서가 아니라 많은 체육 관계 著書를 낸 덕분이다. 그의 저서중 1793년에 발간된 “靑少年을 위한 體操(體育)”은 1799년에 덴마크에서, 1800년에는 영국에서, 그리고 1802년에는 미국에서 改正된 요약판이 나올 정도였고 이어서 네델란드, 바바리아,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에서 계속 간행되어 각국의 체육 발달에 큰 기여를 한 책이다.

그의 代表的 저서로는 “靑少年을 위한 體操(1793)” 외에 “遊戯—놀이(1796)”, “독자 학습에 의한 水泳 技術의 소책자(1798, 1833)”, 심신의 레크레이션과 운동으로서의 “靑少年들과 成人을 위한 力學(1801, 1809)”, “조국의 아들들을 위한 體操書(1817)”, “體操問答書(1818)”가 있으며 그밖에 地理學에 관한 많은 저서들도 저술하였다.

그의 二大 著書로는 “靑少年을 위한 體操”와 그 자매편으로 105가지의 게임을 기술적 발전에 따라 自然的 分類를 한 “遊戯”가 있다.

그의 “靑少年을 위한 體操”는 體操體育이 教育으로서 왜 필요한 것이며 이때의 體育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趙明烈, 1984 : 119, Gerber, 1971 : 119).

제 1 篇은 身體순화의 必要성과 신체운동을 하는 目的을 기술하고 있다. 거기서 체조를

“青春의 즐거운 웃을 입은 運動”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身體와 精神의 活動을 비교하여 男性的의 性格 育成과 均衡 있는 身體로서 自主的인 人間을 育成하기 위해 體育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그 理由를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身體와 精神의 均衡 있는 人間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신체와 정신의 안정, 강인함—남성다운, 힘과 결단력—이성과 용기 있는 태도, 신체활동—마음의 활동, 우수한 체격—정신적인 아름다움, 예민한 감각—사려 깊음(悟性的의 능력).

제 2 篇은 體育의 具體的인 方法論을 記術하고 있다. 구즈므츠는 체육을 첫째, 身體發育에 도움이 되는 身體活動, 둘째, 육체노동, 세째, 젊은이들을 위한 사회적 놀이로 나누었다. 身體發育을 위한 기본운동으로는 보행, 도약, 중량들기, 씨름, 검술, 등반, 평균대, 전투적놀이 등이 있다고 하였다.

제 3 篇에서는 목욕, 수영, 기타 침착과 냉정을 요구하는 운동, 감각 훈련 등을 논하는 이른바 實生活에 이바지 할 수 있는 身體訓練을 제시하고 단련에 의하여 양성되는 忍耐, 沈着 등이 精神 陶冶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體育의 必要性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版에서는 女子의 體育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데 女子도 男子와 같이 신체를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게 날마다 신체 훈련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遊戯”에서 구즈므츠는 유희란 精神作業의 休養으로도 좋고, 作業에 의한 피로의 긴장이 완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유희의 價値를 논하고 있다. 유희를 택할 때는 身體에 有益하고, 危險性이 없으며, 高尚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趙明烈 1984 : 120~121). 구즈므츠는 이러한 105가지의 유희를 敎育적인 기능에 따라 등급화하여 능력에 맞게 즐기고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놓았다.

한마디로 구즈므츠의 著書에 나타난 體育思想은 心身一元論的인 면에서 體育의 必要性을 論하고 人間의 實生活에 必要한 活動을 強調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의 著書는 身體를 적절히 운동시키는 일은 人格形成을 하는 決定的인 역할을 한다고 하여 學校敎育에 있어서 精神과 身體에 대한 관계에서 體育이 포함되어야 함을 정당화시켰다.

#### IV. Nationalism 과 近代體育의 發展

Nationalism 은 古代에서부터 존속되어 왔으나 一般的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近代的인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걸쳐 個人을 國民과 同一視하는 政治·文化的 傾向은 産業革命의 影響으로 점차로 經濟的인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즉 個人의 自由와 福利가 다만 國家(Nation)의 經濟力에 의해서만 遂行되고 보장될 수 있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李

敏鎬, 1958 : 77). 國民國家로 國家의 性格이 바뀌게 된 또 하나의 背景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이다. 특히 자유·평등·박애를 부르짖는 프랑스 혁명은 유럽 각국에 Nationalism과 自由主義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Nationalism에 대한 必要條件은 무엇보다도 國家理念에 근거를 둔 忠誠心이다. 19세기의 敎育은 國家의 發展과 富를 축적하는 가장 效果的인 手段으로 여겨졌다. 그 이전의 敎育은 宗教的 集團이나 個人的인 父母의 特權으로 여겨졌으나 이러한 기능들은 國家精神을 敎育하고 國家에 대한 一體感을 보충하기엔 相當치 못하다고 생각되었다. 대체로 Nationalism은 국민들에게 國家에 대한 忠誠心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活動할 意志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敎育을 요구하고 있다. 國家적 敎育은 애국심 함양과 사회적 동질 의식을 형성시키게 된다(Vandalen, 1971 : 201~203).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國家的 國民敎育은 Nationalism이 만연된 나폴레옹 이후의 유럽에서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유럽 제국에서는 국민적 敎育의 일환으로 체육이 Nationalism과 결부되어 국민적·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軍事訓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國防力 強化에 그 목표를 두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야안(1782~1852)과 스피이스(1810~1858), 덴마크의 나하테갈(1777~1847), 스웨덴의 링(1820~1886)과 같은 體育實踐家들은 1789년 프랑스革命 이후 나폴레옹의 출현으로 유럽 각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자 자기 나라의 再建은 體育를 통한 굳건한 국민을 양성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이들은 자기 나라의 政治的, 社會的 制約 밑에서 특색있는 각종 體操를 창안하고 이를 보급하는 實踐的 活動을 펴서 近代體育이 學校體育과 社會體育으로 完全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Nationalism 下의 體育의 發展 형태는 대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盧熙憲, 1981 : 16). 첫째, 그 당시 각국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동요가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나폴레옹전쟁의 와중에서 個人的 복지를 위한 敎育적 측면에서 체육을 실시한다기 보다는 國家적 방위를 위한 신체단련으로서 體育를 실시하였다는 점, 둘째, 그 대상으로 靑少年을 택하였으며 체조를 통한 體力 鍛練을 목적으로 하였고, 셋째, 學校敎育에 있어서 體育의 必要性을 강조하였으며, 학교체육을 통하여 國家와 民族의 團結을 호소하였다는 점과 넷째, 체육의 合理化, 科學化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 다섯째, 체육을 통한 Nationalism의 形成과 國家觀 확립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Nationalism 下의 體育의 發展形態 중에서 다섯번째 항을 빼놓고는 모두 汎愛派의 體育家들이 主張하던 內容을 Nationalism이라는 時代的 狀況에 따라 약간 變質된 形態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 V. 結 論

이상 筆者는 自然主義와 自然主義의 教育 그리고 自然主義 體育觀을 考察하고 이들을 직접 실천한 汎愛學派의 體育觀을 알아 보았다.

루소는 “에밀”을 통해 變化하는 環境에 人間을 적응시키는 방법을 말하고 “自然에 따라서”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자연주의 理想에 깊은 감명을 받은 일단의 汎愛派教育者들—데소의 汎愛學校 教師였던 바세도우, 시몽, 토이트 그리고 쉬네펜탈의 범에 학교 교사인 살뜨만, 앙드레, 구츠모르츠—은, 自然主義的 立場에서 感覺 爲主의 鍛鍊教育을 실시하고 體育을 學校教育에서 知育에 못지 않은 教科라는 것을 認識시켰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教育目標와 教育方法을 알아보고 이들의 學風이 당시의 時代狀況이었던 Nationalism 과 결부되어 近代體育을 形成하는 데 어떻게 影響을 미치고, 어떻게 發展되어 왔는지를 알아 보았다.

近代體育을 形成하는 데 기여한 汎愛學派의 意義와 그들의 影響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汎愛學派는 루소의 教育論이라 할 수 있는 “에밀”에서 自然主義 思想을 대부분 받아 들였다.

둘째, 하나의 教育思潮로서 自然主義를 體育에 그대로 적용하여 實踐하였다.

셋째, 兒童 中心의 教育方法과 野外生活을 강조하고 自然物을 대상으로 한 教材를 선택하는 感覺鍛鍊 爲主의 生活教育을 실시하였다.

넷째, 近代의 學校의 體制에 맞게 體育을 體系化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다섯째, Nationalism 下에서 國民教育을 汎國家의 으로 실시할 때 國民教育의 중추적 역할을 體育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論的인 體系를 제시하였다.

## 參 考 文 獻

- 金大植外 3人譯. (1973). 「體育哲學」. 서울: 保信出版社.
- 金千鎰. (1983). 「教育史」. 서울: 載東文化社.
- 盧熙憲. (1979). “르네상스 初期의 體育에 관한 考察”. 韓國體育學會流 Vol. 18.
- 盧熙憲. (1981). “體育思想의 變遷過程에 관한 考察”. 서울大體育研究所論集. Vol. 2.
- 盧熙憲. (1983). “西獨實學主義 思想이 近代體育의 形成에 미친 影響”. 師大論叢 第26輯.
- 獨逸文化研究所編獨. (1974). 「逸文化史大系」. 서울: 新志社.
- 閔錫泓. (1984). 「西洋史概論」. 서울: 三英社.
- 李敏鎬. (1958). “Nationalism 概念設定을 爲한 小考”. 歷史教育 第3輯.

- 鄭秉熙譯. (1976). 「에밀」. 서울:東西文化社.
- 鄭應根. (1978). “루소의 體育思想”. 師大論叢. 第17輯.
- 趙明烈. (1984). 「體育思想史概論」. 서울:教學研究社.
- 曹佐鎬. (1983). 「世界文化史」. 서울:博英社.
- 水野忠文. (1971). 「體育思想史序說」. 東京:世界書院.
- 石山水平. (1953). 「西洋近代教育史」. 東京:有斐閣.
- 今村嘉雄. (1955). 「西洋體育史」. 東京:日體本育社.
- Gerber, E.W.(1971). 「Innovators and Institutions in Physical Education」. Philadelphia, Lea & Febiger.
- Rice, E.A. & Hutchinson J.L.(1969). 5th ed 「A Brief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VanDalen, Michel,(1971). 「A World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New Jergy: Prentice Hall Inc.
- Zeigler, Earle F.(1964).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Physical, Health, and Recreation Education」. N.Y.: Prentice Hall. Inc



## Effect of Philandropists on Reforming Modern Physical Education

Rho Hee Duck

### Abstract

The writer reviewed Naturalism, its education, and its view of physical education, and researched the view of physical education of the educator of philandropium who has directly realized them.

Rousseau discussed the method by which man adapts to changing environment and asserted "Back to Nature" in Emile. This naturalistic idea of Rousseau deeply influenced to a group of educators of philandropium-Basedow, Simon, Toit who were philandropist of Desseau and Salzman, Andre, Gutsmus who were those of Schnephtal. They carried the sense-oriented training education into effect from a naturalistic standpoint. Also, they made us recognized that the physical education is no less than the intellectual in school.

This study made an investigation into the goal and method of their education and how their academic traditions which was tied to Nationalism that was the situation of that period influenced on the formation of modern physical education and how it has developed.

The significance and influences of the philandropist school that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modern physical education could be summerized as follows;

First, Philandropists accepted the most of naturalistic thought from Rousseue's "Emile" which is to be called the work of his educational philosophy.

Second, They put Naturalism as a trend of education impact into practice to apply it to the physical education.

Third, They stressed upon the method of juvenile-centered education and field life, and carried the sense-oriented training for living into effect which chooses teaching materials that is made up of the subject like Nature.

Forth, They largely contributed to the systemat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for the

system of modern school.

Fifth, They presented the methodological system with which the physical education can take charge of the central role of national education when we pan-nationally carry the national education into effect under the name of Nationalism.